‘데일리 옵션’에 생을 건다

(시편 5편 1~12)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데일리 옵션'에 생을 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데일리 옵션'에 생을 건다
데일리 브레드(Daily Bread, 일용할 양식)라는 말이 있고, 마틴 루터는 데일리 뱁티즘(Daily Baptism, 날마다 세례)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옵션(Daily Option, 날마다 선택)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생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데일리 옵션에 생을 걸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행복과 참된 구원을 확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자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장례식장을 보여주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고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였던 장로님이 자살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살을 극히 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교인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 이웃 교회에서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집단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약을 먹여서 먼저 죽이고 부부가 자신들도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는지를 생각해 본 결과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된 심리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돌

파구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진로를 찾을 수가 없고 빠져 나갈 출구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출구는 없는데 현재 결과적으로 주어지게 된 실패에 억눌리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자살이 특별히 눈에 띄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실패를 두 번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가치들을 얻는 데에 실패했음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루저가 된 것입니다. 돈 명예 건강 형통 승진 등의 것들에서 실패한 것을 세상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회는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가치기준을 적용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결과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통하고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 구분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또 다른 실패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한 번 실패하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실패를 체감한 뒤에 교회에 들어와서 또 실패의 중압감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자살이 더욱 눈에 띄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은 3편 4편과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던 셋째 아들의 반란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하고 성격이 주도면밀하였습니다. 혈통 또한 외국의 공주를 왕비로 삼아 낳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모반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현재 다윗은 급작스러운 모반과 공격에 황급히 피난을 나온 상태입니다. 다윗도 여러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루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의 첩들을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범하였습니다. 불효 정도가 아니라 패륜도 이런 패륜은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가족과 자식 농사에서 실패한 것이며, 왕으로서도 모반을 미연에 막지 못하고 피난을 나왔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출구가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왕으로서 왕궁을 빼앗기고 피난 중에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이 아무런 출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제시하는 데일리 옵션을 주목하라!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의 상황들이 겹쳐 다가오지만 언제나 데일리 옵션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일리 옵션은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만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괴로울 때에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업(業)이라고 합니다. 뇌물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아들였다면 탐욕에 치우친 악업을 쌓은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업보(業報)에는 반드시 과보(果報)가 따른다는 것을 바로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불변의 진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데일리 옵션을 간과한다면 모든 선택은 연속적으로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데일리 옵션에 주목해야 하고, 무궁무진한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도 데일리 옵션은 주목되어야 합니다. 데일리 옵션이 간과된다면 이어지는 모든 선택은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2절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시작되어 3절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평생의 지침으로 붙잡았던 말씀은 시편 1편 2절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기도인데, 오늘 3절에서는 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굳이 아침을 강조했습니다. 이 아침은 다름 아닌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46절, 민수기 28장 1~8절 등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가르쳤던 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일 년 된 흠 없는 숫양을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번제이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로서 날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다고 한 것은 점심이나 저녁에는 기도를 쉰다는 뜻이 아니고,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를 의식하면서 기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의 기도를 드린다는 말을 하고 4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나온 곳이었습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둔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상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오늘도 제사장들은 그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성막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바로 상번제를 기억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악인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가 바로 데일리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으로 살 것이냐 의인으로 살 것이냐의 두 가지 옵션이 아닌 한 가지입니다.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삼각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나의 몸이 포함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계시며 삼각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둘 중의 하나를 골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옵션이 하나인 이유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세상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담기는 이유는 비어있는 마음을 채움으로서 만족과 기쁨의 지점을 향해서 삶은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삶을 위한 근본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채워야만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으려하고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해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아들딸이 담깁니다. 자녀의 일과 앞날이라는 가치가 담긴 것이고 돈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담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통해 기쁨과 만족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고, 음악가들은 어떻게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세상이 담긴 채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에 옵션이 제공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당신으로 채워지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내 마음에 자녀가 담겨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의 마음에는 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만족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잘돼야 기쁘다는 마음이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업이 너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에 사업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분이 진정한 장로님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엄마나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마음에는 자녀나 사업이 담겨져 있었고 세상의 여러 과제들이 있어서 그것만 이루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번제가 주어졌습니다. 나를 대신할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상번제를 기억하면서 제사장이 양을 죽이는 시간에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지 못했던 내가 죽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번제 때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갈아서 기름을 넣어 뭉친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것은 내 생애의 모든 시간 즉 한 초, 한 분, 한 시, 한 날, 상관없이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평면상에서 내가 시간을 주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

게 매 순간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나는 시간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기 때문에 생애의 어떤 시간도 스스로 쓰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 소제입니다.
또한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포도주는 곧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번제에 대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세상에 대해 기쁨을 얻지 않으려 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던 내가 죽을 때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이는 곧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나 목회나 사업이나 건강과 함께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는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바로 죄악이기 때문에, 기도 중에 4절부터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4절의 죄인들은 압살롬과 그 무리를 일컫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 스스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지 못했다면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원망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마음에서 그것을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 이유는 돈을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도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괴로워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또한 왕궁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왕좌를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좌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 곧 죄임을 깨닫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왕좌를 담고 아들 압살롬을 담았던 다윗이 어린 양이 죽을 때에 함께 죽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서, 이 땅에서는 주체적으로 사용할 시간이 없길 바랐습니다. 또한 기쁨은 오직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주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악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악은 곧 마음을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울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세상을 담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을 마음에 담으려는 것이 또한 오만함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세상 것을 담고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담긴 상태가 아닌 세상이 담긴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은 6절에서 말했듯이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자녀를 담고 자식이 잘되면 기쁠 것이라고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여 자녀가 빠져나간 상태에서만,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이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을 주장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사업 돈 건강 자녀 등으로 채운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무리 건설적이고 감동적으로 보이고 문학적인 수식어를 사용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지라도 다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말이라면 들을 말이 아니게 됩니다.
원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아들딸조차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메이커 신발이 들어있고 새 스마트 폰이 들어와 있어서 사달라고 졸라댄다면 그 상태가 바로 악입니다. 마음에서 새 스마트폰만 쥐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함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마음을 끝없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려 보내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있는 가운데 7절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겠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삶은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은 하나님 대신 세상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는 악으로 가득찬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상사일 수도 있고 부모나 스승일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에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이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라고 마치 다윗의 증오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라이벌에 대한 미움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다윗 자신의 기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나이다 /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를 호위하시리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10절의 기도를 통해서 악인들로 인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상번제는 이처럼 근원적이고 최우선적인 데일리 옵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의 일 자체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찾거나 올바른 선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대한 선택 가능성 자체에 대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옵션에 평생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